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추진

도, 전주 한옥마을·태권도원·무주리조트 일원 K스마일 특구 지정... 다국어 안내판 제작 등

전북도는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등 U20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 전주 한옥마을과 무주 태권도원 및 무주리조트 일원을 K스마일 특구로 지정하고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사업은 K스마일 특구 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다국어 메뉴판 제작, 다국어 안내판 제작, 서비스교육 등을 통해 무주와 전주를 방문하는 외래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북관광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24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2017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음식점 다국어 메뉴판(200여 업소), 숙박업 다국어 안내판(외부LED, 140여 업소) 제작 지원 및 서비스 교육(2회) 등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확대서비스를 강화했다.

도는 지난 3월,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한국방문위원회의 공동 참여를 적극 요청하여 국비 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한국방문위원회는 '2016~2018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관광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서비스 환경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자체와 함께 외래객 수용태세 개선 및 친절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K스마일 특구로 지정된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그동안 외래객을 위한 관



"관심 가져다주셔서 고맙습니다"

22일 한국지엠 데일 설리반 부사장(영업·AS·마켓팅 부문)은 전북도청을 방문, 송하진 지사에게 군산공장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준 것에 감사를 표명했다.

광 안내판 구축이 잘 안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었으나, 도에서 지원하는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사업을 계기로 한옥마을을 방문한 외국인보다 쉽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확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K스마일 확산 및 전북

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종사자 친절교육'과 14개 시군 주요관광지내 식당을 대상으로 '서비스개선 컨설팅' 등 확대문화 개선사업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봄·가을 여행주간에 전주한옥마을, 군산시간여행

마을에서 도 및 시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관광협회 등이 참여해 K스마일 캠페인도 추진한 바 있다.

도 육용기 관광총괄과장은 "외래관광객 맞이 친절문화 확산을 위한 중점사업인 친절서비스 교육 및 스마일 캠페인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이학수, 가뭄해소 항구적 대책마련 요구

지하댐 건설·상시 물 관리 운영시스템 구축 주장

가뭄해소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지하댐을 건설하고 상시 물 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정읍2·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가뭄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상 황실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상시 물 관리 운영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전 반적인 가뭄 실태를 파악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 한 관정개발로 지하수 고갈, 오염 등의 폐단이 지적되면서 관정에 의존 해 온 용수원 개발사업을 개선할 것

을 요청하며 지하댐을 건설해 농업용 수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에는 정읍 고천 지하댐과 우일 지하댐을 포함해 총6개소의 지하댐이 있는데 고천 지하댐은 저수량이 156만 톤에 이르러 정읍 태인면 고천리, 오봉리 등 일원에 하루 2만 5천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우일 지하댐도 총 246만 톤에 이르는 용수를 저장하고 있어 가뭄 시 인근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연구한 자료에서도 지하댐을 설치한 지역이 전체 관개 필요수량 대비 지하수 총 이용량은 약 20~44%로 우리나라 전체는 용수 공급량 대비 지하수 공급량인 약 4.6%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성 기자

최인정, 건설 안전사고 점검·예방교육 필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을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22일 제34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안전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행정기관의 점검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도내 건설업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4명이다.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건설업 사망자 수 11명보다 3명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근로자 수 비중이 전체 산업의 17%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수는 절반 가까이 이르러 그 만큼 건설현장이 다른 업종 근로현장에 비해 더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12월 군산의 건설현장에서는

크레인 작업자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전주 예곡시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이 들어서면서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현장의 크레인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점검과 함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인정 의원은 "안전교육의 제도화가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한명이 사망한 사고가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죽음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보다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함을 관계기관은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35명 입북당 승인 처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입북당 신청자 35명에 대한 입북당 승인 안전을 처리했다.

또 대통령선거 승리 공로 2급 포상은 도당 위원장 포상으로 하기로 하면서 당원 공로 격려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는 22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김춘진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오경남 노인위원장, 최은희 여성위원장, 박재만 을지기는민생실천위원장, 장명식 교육연수위원장, 최영규 디지털소통위원장, 강용규 청년위원장, 박현규 직능위원장, 박희자 다문화위원장, 한승진 대학생 위원장 등 16명의 운영위원 중 1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선거 승리 공로 2급 포상대상자는 모두 445명이다. /김진성 기자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전국 확대 시행

국민안전처 우수사례로 선정...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 중

전북도는 산업단지 내 화재사고, 위험물 사고 등을 예방하고 산업안전강화를 통한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이 국민안전처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여수 산업단지내 화재사고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사업장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에서 운영 중인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운영을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에서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

지 재난안전 예찰단은 지난 22일 OCI 군산공장의 화재사고 등 도내 산단에 화재물류유출사고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산업단지 재난안전 관리강화 및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난의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3월 2일 구성됐다.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구성은 총 27명, 위촉기간은 3년이며, 자격은 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관리에 전문지식·경력과 사업장별 작업환경 등 안전관리에 전문지식 및 경력자 등 산단 내 사업장의 안전·환경 관리자로 선정, 분기별로 1회 사업장

을 방문하여 재난위험요소에 대한 예찰활동을 한다.

그동안 재난안전 예찰단 활동실적은 총 6회, 104개 사업장에 대해 예찰활동을 하였으며, 이중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 안전저해요소가 발견된 49개 사업장은 개선을 완료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산업단지 재난안전예찰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 간 재난안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안전을 사전에 예방,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동대응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비응향 방파제 설계 재검토 촉구 건의안' 채택

이성일 도의원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이성일 의원(국민의당·군산4)이 대표 발의한 '비응향 방파제 설계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 22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인 '비응향 정온도 개선사업'은 계절풍이나 북서풍, 서풍을 막을 수는 있어도 여름철 태풍은 막지 못해 선박 간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비응향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어민들을 비롯한 비응향 이용단체들의 주장대로 남서풍을 막는 방안으로 설계를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일 의원은 "비응향은 태풍이 올 때마다 밀려드는 파도에 의해 선박사고 내지 피해를 반복해 왔다"며 "남서풍을 대비한 설계변경을 통해 비응향의 항구의 본연의 기능을 찾아 선박의 안전확보와 주민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나아가 새만금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